



제 3 편  
교육 · 학술

- 제1장 총 론
- 제2장 교 육
- 제3장 학 술



## 제1장 총 론

제3편에서는 ‘교육’ 과 ‘학술’ 로 나누어 동문들의 활약상을 살펴보았다. 오현고등학교가 개교 될 당시는 지역적으로는 4·3의 뒤끝이었고 국가적으로 전쟁 중이었다. 1950년 10월 10일을 기 해 제주도에 한하여 계엄령이 해제된 가운데 피난민들까지 몰려왔다. 이런 가운데 국가 재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뜻 있는 지역 인사들에 의해 오현고등학교가 1951년 9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인문계 사립학교로 개교하게 되었다.

제주 지역은 광복 직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의 혼란을 학교 설립으로 극복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기에만 설립된 초등학교가 42개교, 중등학교가 22개교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교 설립 붐을 이룬 교육에 대한 열정에 힘입어 제주도립초급대학 설립(1952. 5. 17), 제주도립도서관 개관(1957. 11. 1), 제주교육대학 개교(1968. 10. 26), 간호보건대학 개교(1969. 3. 18), 한국방송 통신대학의 개교(1971. 9. 26), 제주실업전문대학 개교(1973. 3. 30), 탐라대학 인가(1996. 12. 11) 등이 있었는데, 이에 오현고 출신의 교육·학술 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현재 오현고 동문 중 총 1,295명이 교육계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도내 초·중등학교에 662명, 도외 초·중등학교에 207명, 국내외 대학에 311명, 교육 행정직에 116명이 각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도내 초등학교에 교장급 9명, 교감급 19명이, 도내 중등학교에 교장급 25명, 교감급 28명이, 도외 초중등학교에 교장급 3명, 교감급 3명이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또 김병찬(1), 임태호(8), 부만근(9), 김창희(15) 동문이 현재 제주한라대학 학장, 제주산업정보 대학 학장,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관광대학 학장으로 각각 재직 중이며, 1회 오윤겸, 임홍선을 비롯한 동문들이 제주교육대학교의 학장 및 총장을 5대에 걸쳐 연임하기도 하였으며, 조문부(2), 조창현(2) 동문이 제주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강재보(5) 동문이 제주도교육 청 부교육감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학술분야는 인문·사회 분야에 182명, 자연과학 분야에 102명, 공학 분야에 192명 등 총 476 명의 동문들이 여러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이들 중 퇴임한 동문이 17명, 또 고등학교에 재직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8명의 동문들도 있다.

전공학위를 분야별로 보면 이학박사가 61명, 문학박사가 46명, 농학 박사가 30명, 경영학 박사가 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제2장 교 육

### 제1절 서언

1951년 9월 25일 개교이래 현재(50회)까지 졸업생 총수는 19,118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계로 진출하여 활동했거나 현재 활약하고 있는 동문으로 파악된 인원은 39회까지 1,254명(총동창회 자료)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공적을 다 조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려니와 제약된 지면에 다 수록할 수도 없어 기술하는 데 몇 가지 제한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첫째로 편이 상 10년 연도 단위로 (1) 1950년대(1-9회), (2) 1960년대(10-19회), (3) 1970년대(20-29회), 1980년대(30-39회)로 묶어 기술하였다.

둘째로 교육자로 배출시킨 은사들에 대한 기술이 우선돼야 할 것인데, 전직 교사 수만도 230여명에 이르러 다 기술할 수가 없어, 제자들의 기억에서마저 흐려질까 우려되는 1960년도 이전까지 고등학교에 근무했던 분만을 기명(記名)하고 재임기간을 밝혔다. 이 기간에 근무했던 교사들은 빛나는 오현 역사를 창출하는데 터를 다진 분들이며, 이 고장 교육발전에 기원을 다진 분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셋째로 본교 출신 교육자들 중에 교육행정직, 사설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분을 제외하고, 공교육기관에서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현직에 있는 분만을 전원 대상으로 했다. 퇴직인 경우 재직 당시 학교(기관)와 수상(훈·포장) 내용을 밝혔고, 현직 교수인 경우 학위(박사)와 재직 처를 밝혔다. 현직인 교장(장학관, 연구관), 교감(장학사, 연구사)은 근무처와 직급을 밝혔다. 현직 교사인 경우는 초등과 중등만으로 구분 표시했다.

이를 기술함에 총동창회의 학력 및 경력 자료와 직장구분별 회원 자료에 기초하였고, 미비한 점은 회기별 동창들의 자문을 얻어 기재했으나 연락하는데 한계가 있어 인명 누락 또는 학위 기재가 안 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제2절 1950년대 재직 교사와 배출 교육자

#### 1. 교육적 환경

1950년대는 일제 강점기 이후 가장 어려운 수난의 시기였다. 1회에서부터 5회까지는 이미 초

등학교시절에 일제교육을 경험해야 했고, 4·3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이 터져 학병으로 전선에 나가기도 해야 했다. 전란 직후라 궁핍한 생활을 면할 도리가 없었으니 배움에 충분조건으로 어느 하나 갖춘 것이 없었다. 학교 시설도 그러려니와 교과서마저 다 갖추지 못했었다. 게다가 노력동원, 군사훈련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시대 상황이었다.

정부의 교육시책으로는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과 보급, 민주교육 이념의 보급, 6-3-3-4 학년제로 개편이었다. 1951년에 발표된 ‘교육특별조치 요강’은 중등학교의 개편, 중학 입학에 위한 국가고시의 실시, 국·공립 대학의 설치,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주도 최초로 1952년 5월 27일 독립제주초급대학이 개교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미군정에 의해 임시방편으로 제시된 교수요목기(1946-1954, 각급 학교, 각 교과과의 교수요지, 요목, 수업시간 등 문교부령으로 고시)에서 진보주의 교육과정(1954-1964)이 운영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찬란한 오현고 역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 고장 석학들이 대부분 본교 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이며,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최초로 개교해 순수 학문을 갈망하는 준재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 재직 한 교장과 교훈을 살펴보면, 초대 이경수(1-3회)교장 학행일치(學行一致)이었다가, 2대 홍정표(4-5회)교장 자강불식(自強不息)으로 바뀌었다. 3대 이경수(6-8회)교장이 다시 부임하면서 교훈을 지행합일(知行合一)로 다시 바뀌며 4대 장용직(9회)교장으로 이어졌다.

## 2. 1950년대 본교 재직 교사

본교 개교 이전은 중학교가 4년 제 학제였다. 몇 분 선생님은 이미 1946년 중학교 개교 때부터 부임해오다가 중·고가 분리되어 1951년 9월 25일 개교와 함께 고등학교 교사로 가르쳤으니 부임 연도가 1951년 이전인 경우도 있다. 이분들의 경우는 부임일자를 개교 일로 잡았다. 1회와 2회가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동시 입학하게 된 것도 학제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직했던 교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인사 사령부의 기재가 명료치 않아 퇴임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 몇 분의 증언을 토대로 했음을 밝혀둔다.

- 김인호(金仁顯, 국어, 1951. 9. 25-1954) : 개교와 함께 교무부장을 맡았고 퇴임 후 서울고 교사, 향토 사학가로 활약했다.
- 이경수(李慶守, 1951. 9. 25-1955. 6. 18, 1958. 2. 11-1960. 5. 31) : 1949년도 중학교 교감, 본교 개교와 함께 초대 교장을 맡음, 3회까지 배출 후 3대 교장으로 재 부임하여 6회-8회를 졸업시키고 퇴임하여 제주여고 교장을 역임했다.

- 진원일(秦元日, 생물, 1951. 9. 25-1956. 9. 30) : 본교 퇴임 후 제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 허두구(許斗久, 논리, 1951. 9. 25-1956. 3. 31) : 본교 퇴임 후 언론인 및 중등교장으로 재직하다 퇴임.
- 고봉식(高奉湜, 음악, 지리, 1951. 9. 25-1967. 1. 15) : 1962년 1월 5대 교장으로 취임, 10회에서부터 14회까지 배출시켰다. 퇴임 후 공립학교로 전직, 교장, 교육감, 제주 관광대학장을 역임.
- 박병석(朴秉奭, 체육, 1951. 9. 25-1954. 8. 31) : 본교 축구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퇴임 후 서울시 축구협회 감사로 활약했다.
- 이기영(李基榮, 1951. 9. 25-1954. 1. 14) : 교감을 역임하고 공립으로 옮겨 교장을 역임.
- 김진희(金進熙, 화학, 1951. 9. 25-1952. 9. 30, 1960. 4-1961. 12. 14) : 재직중 사망
- 김수택(金洙澤, 영어, 1951. 9. 25-1960. 4. 5) : 공립으로 옮긴 후 교장으로 정년퇴임.
- 김홍식(金弘植, 영어, 1951. 9. 25-1955. 5. 15).
- 문태오(文泰午, 영어, 1951. 9. 25-?) : 3회까지 가르치다 서울고교로 옮기고 EMI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 김영택(金榮澤, 국어, 1954. 9. 20-1955. 8. 31) : 퇴임 후 제주시 부시장 역임.
- 고중석(高仲錫, 수학, 1951. 11. 23-1952. 1. 26) : 제주여고교로 옮김
- 강순학(康淳學, 수학, 1951. 10. 29-1967. 1) : 신성여고교로 옮김
- 이기형(李琪亨, 국어, 1952. 1. 22-1967. 1) : 본교 퇴임 후 MBC 한라일보 등에서 활약.
- 강두화(姜斗禾, 영어, 1951. 9. 25-1951. 10. 5) : 교장으로 퇴임 후 제주시교육장 역임.
- 김영돈(金榮墩, 국어, 1954. 4. 7-1960. 1. 30) : 본교 퇴임 후 제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 김학수(金鶴洙, 영어, 1957. 3. 31-1963. 3. 5)
- 김공천(金功千, 영어, 1952. 1. 18-1958. 3. 31) : 공립으로 전직, 제주여고 교장으로 퇴임.
- 고담용(高湛龍, 1952. 11. 19-1954. 12. 30) : 교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1955년 1월부터 강사로 약 10개월 간 출강하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 고택구(高宅球, 국어, 교감, 1952. 4. 19-1958. 4. 19) : 공립으로 전직, 교장으로 퇴임.
- 김진흙(金鎭翁, 수학, 1954. 4. 6-1992. 2. 28) : 부임 후 정년퇴임 시까지 모교에서만 재직한 유일한 분으로 오현 반세기사의 증인이다.
- 김병조(金秉朝, 수학, 1954. 4. 7-1961. 4. 7) : 미국이민
- 오태용(吳太用, 국어, 1954. 4. 10-1961. 12. 23) : 공립으로 전직 후 교장으로 정년퇴임.
- 신준식(申駿湜, 사회, 1954. 4. 15-1955. 4. 26)
- 양중해(梁重海, 국어, 1954. 5. 14-1961. 5. 31) : 퇴임 후 제주대학 교수로 활약하다 정년 퇴임. 제주문화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김용환(金鎔煥, 화학, 1954. 10. 14-1957. 3. 31)
- 오두성(吳斗星, 과학, 1955. 1. 16-1957. 3. 31)
- 김하룡(金河龍, 독어, 1955. 5. 9-1959. 3. 31) : 공립으로 전직 후 교장, 제주시 교육장 역임.
- 양창수(梁昌洙, 국어, 1955. 5. 5-1957. 6. 20) : 공립으로 옮겨 교장으로 퇴임했다.
- 양홍식(梁弘植, 역사, 1955. 4. 19-1958. 9. 30) : 신성여고교로 옮겨 퇴임했다.
- 이희련(李希鍊, 수학, 1955. 3. 31-1958. 3. 31)

- 장용하(張龍河, 사회, 1955. 3. 31-1959. 7. 31) : 한국일보 제주지사장 역임.
- 홍정표(洪貞杓, 교장, 1955. 7. 6-1957. 5. 2) : 공립고등학교장으로 재직하다 2대 교장으로 취임, 4회와 5회를 졸업시켰다.
- 홍승표(洪承杓, 영어, 1955. 8. 31-1958. 3. 31) : 미국 공보원으로 옮김.
- 김봉두(金奉斗, 교련, 1955. 8. 31-1956. 9. 30)
- 강두진(姜斗珍, 교련, 1955. 8. 31-1962. 3. 20)
- 한만숙(韓滿淑, 상업, 1956. 4. 8-1958. 3. 31)
- 문인택(文仁澤, 교련, 1956. 10. 10-1958. 3. 31)
- 이원구(李源九, 교련, 1956. 10. 10-1958. 2. 3) : 공립으로 전직하여 교장으로 퇴임.
- 김영생(金英生, 영어, 1956. 10. 15-1961. 7. 31) : 관직에 재직하다 퇴임.
- 오윤겸(만수, 吳允謙, 화학, 1957. 5. 6- 1965. 2. 28) : 제주교육대학 교수로 옮겨 학장 임기 중 작고했다.
- 김연수(金演洙, 영어, 1958. 4. 7-1961. 6. 15) : 노동청으로 옮겼다 미국이민.
- 현병준(玄秉俊, 수학, 1958. 4. 7-1967. 1)
- 이방아(李芳兒, 역사, 1958. 4. 6-1962. 3. 6) : 공립으로 옮겨 교장 역임.
- 조문부(趙文富, 사회, 1959. 9. 25-1960. 10. 31) : 제주대학교 총장역임.
- 김영호(金英昊, 화학, 1960. 3. 31-1961. 4. 7) : 제주교대 교수로 옮겨 학장 역임.
- 현호중(병흡, 玄湖仲, 독어, 1960. 3. 31-1961. 4. 7) : 언론계로 옮겼다가 정보통신계로 옮김.
- 김희택(金熙澤, 사회, 1960. 3. 31-1961. 6. 15) : 미국 이민.
- 김승택(金升澤, 음악, 1960. 3. 31-1973. 2. 24 ) : 한라원드양상블 지휘자.
- 송상순(宋尙舜, 사회, 1960. 4. 15-1979. 3. 6) : 제주교육대학교 9대 학장과 10대 총장 역임
- 양남부(梁南富, 영어, 1960. 5. 13-1975. 2. 20 )
- 장용직(張龍職, 교장, 1960. 10. 15-1961. 9. 16) : 4대 교장으로 취임 9회를 졸업시키고 퇴임.

이상 1960년도 이전까지 재직했던 분들을 살펴보면, 교육계, 학계, 정계, 언론계 등에서 적잖은 업적을 남겼음을 알 수 있으니 당시 이 교장 지도층이 모교 교사로 총 망라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1950년대 회기별 출신 교육자

#### 가. 1회 출신 교육자

중등 교장직에서 정년퇴임한 동문으로 강창현(탐라교육원장, 학생문화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김권용(연구관, 중문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김익수(서귀포여자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부승하(연평중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조수민(대정고등학교, 탐라교육원장 퇴임, 국민

훈장 동백장), 현대응(조천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홍태휴(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 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이 있으며 강경진, 강근보, 김태정, 조석만 등은 재직중 작고했다.

교감직에서 퇴임한 동문은 김용택(신창중학교, 국민훈장 동백장, 작고), 김인규(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국민훈장 목련장), 송영관(제주동중학교, 국민훈장 동백장), 양익중(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국민훈장 목련장) 등이 있으며, 이병숙(서울, 초등), 조성균(서울, 중등), 현승복(부산, 중등) 등은 도외에서 교직생활을 마쳤다.

대학에는 고계창(의학박사, 경희대학교 의대교수), 고원희(제주대 인문대학장, 작고), 오윤겸(만수)(제주교육대학장, 학장 재임 중 작고), 임홍선(제주교육대학장 역임 후 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학습관장 역임) 등이 재직했는데 김병찬(의학박사)은 현재 제주한라대학장으로, 김영일(의학박사)은 미국 퍼듀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1회 89명(분교 졸업생 제외) 졸업자들 중에서 이처럼 훌륭한 교육자들이 나올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고등학교가 뜨거운 교육열로 매진하는 전통 창출의 토대가 되었다 할 것이다.

#### 나. 2회 출신 교육자

중등 교장 직에서 정년을 맞은 동문으로 고근식(세화중학교 교장, 국민훈장 동백장), 이택훈(오현중학교 교장, 국민포장)이 있으며, 교감 직에서는 김성주(한림중학교, 국민훈장 목련장), 교사로 정년퇴임한 분들은 고재항(조천중학교에서 명퇴, 국민포장), 김구형(제주서중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두승(제주제일중학교, 국민포장), 김두현(김녕중학교, 국민훈장 동백장), 김정흡(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국민포장) 등이다.

도외 교직생활을 하다 퇴임한 동문은 고승중(서울, 중등, 서울시 교육위원 역임.), 장판석(부산, 선화여자중학교 교감)동문이 있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동문은 강통원(제주대학교 교수 인문대학장과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역임), 김순택(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영어교육학과 교수, 사범대학장 역임), 박철희(문학박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역임), 양원석(경상대학교 사범대 교수), 조문부(정치학박사, 제주대학교 총장 역임), 조창현(행정학박사, 한양대학교 부총장 역임), 조태송(공학박사, 국민대학교 교수) 등이다.

#### 다. 3회 출신 교육자

중등 교장 직에서 퇴임한 동문은 김두혁(장학관, 표선상업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목련장), 장협중(연평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홍석여(함덕중학교, 국민포장), 교감급에는 김도빈(애월상업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선택(오현고 교감), 김성일(제주상업고등학교, 국

민훈장 동백장), 김용대(에월상업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박병준(신성여자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양정환(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한석두(남원중학교, 국민훈장 목련장) 등이다.

또 강정표(조천중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강종채(토평초등학교 명퇴, 국민훈장 석류장), 김성화(평대초등학교 명퇴, 국민훈장 석류장), 김순주(중등교사), 문두은(한림여자중학교, 국민훈장목련장), 오정일(중문중학교, 국민훈장 목련장), 임종율(조천중) 동문들이 초·중등교육계에서 활약했으며 도외에는 김학진(오석중학교 교장), 김항명(서울 은곡중 교감), 강문현(대구, 중등), 임종현(서울, 중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활약했던 동문은 김범국(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교무처장 역임), 문기선(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역임), 정동귀(정치학박사, 경희대학교 교수), 한석규(약학박사, 부산대학교 약학대 교수, 학장 역임), 현한경(제주교대 교수 역임, 서울상아탑학원장 역임) 등이 있다.

#### 라. 4회 출신 교육자

4회 출신 중등은 많은 동문이 교육계에서 활동하다 퇴직했는데 강기섬(남주고등학교 교장 퇴임), 강용현(연평중학교 교장 역임, 작고), 김두배(제주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김명준(서귀여자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김인호(신창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목련장), 김치경(제주제일중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김태문(제주여자중학교 교장 퇴임), 김형탁(서귀중학교 교장 퇴임, 황조근정훈장), 박응선(세화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목련장), 양경림(효돈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양봉규(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좌신규(제주중앙여자중학교 명퇴, 대통령 표창), 좌종일(신산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포장) 등이 있다.

교감직급에서는 강상수(대정중학교, 국민포장), 강익수(경동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순평(신산중학교, 국민포장), 김영수(삼성여자고등학교), 김영하(신성여자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창수(신성여자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창주(한림공업고등학교, 대통령 표창), 양경하(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이상인(한천초등학교 명퇴, 국민훈장 동백장) 등이고, 강병전(제주공업고등학교, 국민포장), 강영일(에월중학교 명퇴, 국민훈장 석류장), 김광호(서귀중앙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김희인(한림여자중학교 명퇴, 국민훈장 석류장), 고석홍(대구, 중등), 이동우(서울 명지고등학교 교감) 동문들도 도·내외에서 명예퇴임과 정년퇴임 했다.

대학교 교수는 고문승(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고시천(건국대학교 교수 역임, 현 일본큐슈산업대 교수), 고창실(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종원(영화평론가, 청주대학교 교수), 김태규(문학박사,

수원여자대학 교수), 김호순(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송상순(교육학박사, 9대 제주교육대학장과 10대 총장 역임), 이성배(성남기능대학장), 현성휴(경영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등이 있다.

#### 마. 5회 출신 교육자

정년 단축으로 인해 2001년 12월 현재 거의가 정년 또는 명예 퇴임을 했다.

중등교육계 교장직급으로 퇴임한 동문은 강재보(장학관, 교장, 부교육감 역임, 홍조근정훈장), 강태일(제주서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고상탁(조천중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김용준(신업중학교 교장 퇴임, 옥조근정훈장), 김철권(제주시교육청 교육장 퇴임, 홍조근정훈장), 양용화(제주여자고등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양윤석(제주서중학교 교장 퇴임, 홍조근정훈장), 양후림(오현고등학교 교장 퇴임, 홍조근정훈장), 오창보(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이순준(함덕정보산업고에서 명퇴, 국민포장), 장상호(제주동중학교에서 명퇴, 국민훈장 석류장), 전영대(표선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동백장), 좌운국(신업중학교 교장 퇴임, 황조근정훈장), 채종성(제주여자중학교 교장 명예퇴임, 옥조근정훈장), 현남두(제주시교육청 학무과장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등이며, 서귀포대신중학교 김찬홍 교장만 현직에 남아 있다.

교감직에서는 김길호(남주중학교), 이영구(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 이재권(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명퇴, 대통령 표창), 한석하(성산중학교, 국민포장)씨 등이고, 교사로 퇴임한 동문은 고경화(제주상업고등학교), 고상홍(대기고등학교, 홍조근정훈장), 고태진(중문중학교, 녹조근정훈장), 김익수(제주상업고등학교), 김인길(오현고등학교 명퇴, 옥조근정훈장), 박창표(대기고등학교 명퇴) 등이다.

도외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퇴임한 동문은 강익수(경기, 중등), 고인수(도외, 초등), 이영구(서울, 중등) 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강상배(제주교육대학교 교수 재직중 작고), 강승삼(이학박사, 전남대학교 사범대 교수), 강창연(공학박사,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 고남욱(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고재환(문학박사,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고태홍(문학박사,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장, 영어교육과 교수), 김경용(커뮤니케이션학박사, 미 나자렌대학 교수), 김재민(문학박사,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임중 작고), 김영신(제주대학교 수학과 교수), 문충성(문학박사, 제주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부수언(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KODAS연구원), 양용(공학박사,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 오남삼(문학박사,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중 작고), 오명호(공학박사, 고려대학교 수학과교수), 장전익(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한철순(제주대학교·계명대학교 교수 역임), 홍종립(문학박사,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등이 있다.

#### 바. 6회 출신 교육자

제주도 중등교육계 교장 직위에서 퇴임 또는 현재 재직 중에 있는 동문들을 살펴보면, 김광환(제주중학교 교장 퇴임, 근정포장), 김용택(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장 퇴임, 홍조근정훈장), 김무중(고산중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김운창(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장 퇴임, 옥조근정훈장), 김정우(제주동여자중학교 교장), 문태길(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장 퇴임, 옥조근정훈장), 박선홍(이학박사, 남녕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포장), 이성언(한림공업고등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진정수(한림고등학교 교장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도외 중등 교장으로 강택부(부산 화명중학교 교장 퇴임, 녹조근정훈장), 홍창남(경기 서현중학교 교장 퇴임, 홍조근정훈장) 등이 있다.

교감급으로는 강길정(서귀고등학교 명퇴, 근정포장), 김다량(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감, 황조근정훈장), 송용길(서귀고등학교 명퇴, 근정포장), 이봉길(제주제일고 명퇴, 녹조근정훈장), 이봉주(제주제일고 명퇴, 옥조근정훈장), 정순윤(제주중앙여중 명퇴, 옥조근정훈장), 현대립(제주동초등학교 명퇴, 국민포장) 등이 있다.

교사로 명예 퇴임했거나 정년퇴임한 동문은 김철용(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퇴임, 국민훈장 석류장), 김홍림(오현고등학교 퇴임, 옥조근정훈장), 양지철(맹규(오현중학교 퇴임), 조의호(신성여자고등학교 퇴임, 옥조근정훈장) 등이며, 도외에서는 김대식(부산 이사벨여자중학교 퇴임), 김두인(경기 고양종합고등학교 퇴임), 김상훈(흥해중학교 명퇴), 김윤승(경기 부명중학교 명퇴), 오태희(동양공업고등학교), 이창운(부산 안락중학교), 주포천(서울 광남고등학교) 등이다.

대학 교수로는 김귀현(경영학박사, 상지전문대학장, 상지대학교 부총장 역임), 김시태(문학박사, 평론가, 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장), 김응식(경제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과 교수), 김형수(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현영기(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제주산업정보대학 평생교육원 원장), 현의태(경제학박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원장) 등이 있다.

#### 사. 7회 출신 교육자

7회 동문은 몇 명을 제외하고 2001년 12월 현재 현직에 있다.교장직으로는 양돈수(인천 초등학교 교장), 좌영조(제주여자고등학교 교장)가 있으며, 현직 교감으로 김태성(이학박사, 한림고등학교), 현남식(위미중학교)이 있다. 퇴임한 동문은 김철희(신성여자고등학교, 녹조근정훈장), 고태열(오현고), 전의식(도남초등학교, 국민포장), 문창보(조천중학교), 진대원(관성공업고등학교) 등이며, 현직 교사로 강경훈(오현중), 김익우(중등), 문용욱(대구, 초등), 이기신(중등), 현기봉(중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은 고상용(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대 교수), 김봉오(공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박희운(서광대학교 사무처장), 오문유(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생명과

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장 역임)가 있으며, 안성화(법학박사, 단국대학교 교수)는 퇴임했다.

#### 아. 8회 출신 교육자

8회 동문중 고문웅(탐라교육원장), 고흥식(아라중학교 교장), 김희진(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박달수(조천중학교 교장), 박영호(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오행옥(성산초등학교 교장), 김방현(한림여자중학교 교장), 김순일(오현중학교 교장) 등이 교장급에 있으며, 강창남(남주고등학교, 국민훈장 석류장), 김수방(한림여자중학교, 국민포장), 송창희(표선중학교, 옥조근정 훈장), 이진홍(김녕중학교), 좌방길(중등) 등은 명예퇴임 했다. 또 김인호(서울, 중등), 김장근(대구, 중등), 박옥룡(중등), 변문찬(중등), 이남진(중등), 정충선(중등), 한성용(중등)은 교사로 재직중이다.

대학교수로는 강광윤(농학박사, 농협대학 교수), 고명은(문학박사, 목원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이봉현(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임태준(건축기술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임태호(농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학장), 한성빈(이학박사, 제주대학교 화학과 교수, 자연과학대학장), 홍석표(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등이 활동하고 있다.

#### 자. 9회 출신 교육자

현직 교장으로 강정길(제주상업고등학교 교장), 고성휴(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고응대(제주중앙초등학교 교장), 김영일(남주고등학교 교장), 김윤수(오현고등학교 교장), 김인찬(제주영지학교 교장), 좌청길(세화중학교 교장), 양성언(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현 제주도교육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감으로 부청일(제주영지학교 교감)이 있다. 또 교사로는 강진치(중등), 고흥선(중등), 김광우(초등), 김길수(중등), 김동식(중등), 김승일(중등), 김양홍(중등 작고), 송광훈(초등), 양두화(중등), 장제익(중등) 등이 일선 교육현장에 있다. 고명선(중등)과 양윤수(초등)는 퇴임했다.

대학에는 강수웅(공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강태숙(농학박사, 제주대학교 동물자원학과 교수), 김승곤(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재임 중 작고), 문두길(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원예생명학부 교수, 학생처장, 기획연구실장 역임), 부만근(행정학 박사, 제주대학교 총장), 송희성(법학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이 있다.

이상 1회에서부터 9회까지 교육계로 진출하여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소개해 보았다. 9회까지 교장 67명, 교감 35명, 교사 68명, 교수 61명으로 교육전문직에 종사한 동문만 총 231명에 이른다. 교육행정직에 있거나 사설학원, 기타 사회교육 분야에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시킨다면 교육 관련 종사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대학 교수를 제외해서 보면 거의가 본도 중등교육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교육활동을 전개한 시기는 1950년대 후반으로 이 때부터 중등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 고장 중등교육발전에 이

들이 남긴 업적과 공로가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제주교육대학의 학장, 총장을 5대에 걸쳐 동문들이 연임했으며, 제주대학교 총장도 현재 2대에 걸쳐 연임 중에 있다. 도내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외국 대학에서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오현동문이 자궁이라 할 것이다.

### 제3절 1960년대 회기별 출신 교육자

#### 1. 1960년대의 교육환경

1960년대는 1950년대에 비해 국란에 의한 폐해는 어느 정도 치유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소 궁핍을 면할 수 있었으나 정치적인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는 시기였다. 4·19혁명으로 자유당 독재정권이 붕괴되고, 뒤이어 민주당 정권이 집권 1년여 만에 다시 5·16 쿠데타로 무너지는 정치적인 악순환 기였다. 1969년 9월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안과 국민투표 법안을 국회에서 기습통과시키자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데모가 그칠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 당시 오현단 교정은 온갖 쫓겨간 학생들의 본거지였다. 9월 17일 3선 개헌 도민 지지 쫓겨간 학생들의 관 주도로 교정에서 오후에 열리게 된 날 아침, 학교 석조 강당 건물 현관 벽에 '3선 개헌 지지 도민 총 쫓겨간 학생들의' 라는 현수막이 미리 걸려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다 말고 교정에 모여 '3선 개헌 결사반대' 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미 걸려 있던 현수막엔 청색 글씨로 '지지' 라고 쓴 것을 어느새 점 하나를 더 찍어 '저지' 로 바꾸었으니 '3선 개헌 저지 도민 총 쫓겨간 학생들의' 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당시 국무총리가 제주은행 개점식에 참석하기 위해 내도중이었고 경찰경비가 시작된 때라 그 파장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학교 내적인 면에서도 반세기 오현사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교육당국은 공립 우대 정책을 펴기 시작, 전국적인 명문 사학들의 명성이 퇴색해가고, 게다가 오현은 학교분규마저 일어나 교사들까지 양분되어 명문 사학으로서의 전통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의 정열과 학구열은 오히려 더 타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문 사학으로 전통의 맥을 전승시킬 수 있었다.

학교 내부적인 변화로 중·고가 다시 통합(1962. 1)되고, 고봉식(高奉湜) 선생이 5대 교장으로 취임했고, 2부 3학급이 증설(1963. 3)되었다가 1부 관광과로 개편(1966. 5)되었다. 6대 교장으로 고정일(高正一) 선생이 취임(1967. 1. 16)하면서 교훈을 지행합일(知行合一)에서 학행일치(學行一致)로 바꾸었으며, 고정일(高正一) 교장이 퇴임과 더불어 학교 분규가 일어났다. 다시 중·고가 분

리(1969. 12)되었으며, 7대 교장으로 홍동표(洪東杓) 선생이 취임(1969. 12. 29)하게 되었고 이후 교훈은 학행일치(學行一致)로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다.

이 시기의 교육과정은 경험중심 교육과정(1962-1973)기였다.

## 2. 1960년대 회기별 출신 교육자

### 가. 10회 출신 교육자

보통 교육계 교장급 동문으로 김평하(서귀포시교육청), 강신언(표선중학교 교장), 윤영도(하원초등학교 교장), 이재영(대정서초등학교 교장), 한병용(고산상업고등학교 교장), 고병윤(제주도교육청 장학관) 등이 있고, 교감으로 오용승(한림초등학교 퇴임) 등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사들로는 고운봉(중등), 김정무(중등), 박진중(중등), 부근언(중등, 교감자격소지), 전성권(중등), 홍두표(중등) 등이고, 도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영섭(밀성여자상업고등학교), 부성문(경성전자정보고등학교), 오의남(가락고등학교) 등이 있다. 퇴임한 분들로 오문준(구릉포초등학교), 오용승(한림초등 교감) 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강거배(문학박사, 서강대학교 교수, 작고), 김상식(공학박사,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수길(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익찬(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양용준(공학박사, 인하대학교 교수), 오만규(문학박사, 삼육대학교 교수), 오성춘(신학박사, 장로회신학대학 교수), 이순보(이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장), 이준비(영문학박사, 제주한라대학 생활체육과 전임강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 나. 11회 출신 교육자

교장 직에 강남진(김녕중학교 교장), 고성익(금악초등학교 교장), 김승립(대기고등학교 교장), 김혜우(한림공업고등학교 교장), 신수범(동광초등학교 교장), 한인섭(동남초등학교 교장) 등이 있다. 교감으로 강용범(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김봉추(중앙초등학교) 등이 있으며, 현직 교사로 강대성(중등), 고재만(중등), 고행익(중등), 권세진(중등), 김봉식(중등), 김영원(남녕고등학교), 김영일(중등), 이석부(중등), 이원경(중등), 임철수(중등), 정병진(중등), 한경조(중등)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외에는 이안태(서울남성중)교감과 홍규생(서울, 초등)이 있고, 송태원(함덕중학교)동문은 퇴임했다.

대학에 재직 중인 동문은 김항원(교육학박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범대학장역임), 박용봉(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백동훈(농학박사, 전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송성대(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홍희광(문학박사, 상지영서대학 교수) 등이 있다.

#### 다. 12회 출신 교육자

보통 교육계에 활동하고 있는 동문으로 강원식(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교장), 고영국(신광초등학교 교감), 김용우(애월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용희(장전초등학교 교장), 김재수(제주도교육청 장학관), 문영진(추자중학교 교장), 신유길(제주도과학연구원 연구관), 양의정(구업초등학교 교감), 윤승은(남주고등학교 교감), 장대용(신성여자중학교 교장), 한희환(일도초등학교 교감), 고승화(중등, 교감자격증 소지), 고완봉(중등), 김대희(중등), 김동식(중등), 김순호(중등), 김영철(제주여자고등학교 교감), 김창언(중등), 김형민(중등), 부용균(중등), 홍덕기(중등) 등이며, 고상문(한림공업고등학교), 김충성(제주여자고등학교), 오행립(제주상업고등학교)은 퇴임했다.

대학 교수로는 강남국(경영학박사,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고남철(철학박사, 국제성결신학대학 교수), 구성일(이학박사, 미국 맨하탄 캔사스주립대학교 교수), 김문홍(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김철석(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김태운(이학박사, 부산 가톨릭대학 보건과학대학장), 부정숙(공학박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양영수(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오만원(교육학박사,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이강현(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 이문선(경영학박사, 한양대학교 상경대 학장), 이장순(공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식품영양과 교수), 장덕지(농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홍양기(공학박사, 미국 아이다호주립대학 교수) 등 비교적 많은 동문이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 라. 13회 출신 교육자

보통교육계에 교장,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문으로 김승근(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부영삼(연평초등학교 교장), 임인홍(경기상업고등학교 교장), 고승훈(한림공업고등학교 교감), 김완령(오라초등학교 교감), 부혁찬(제주도교육청 장학관), 이원희(제주과학고등학교 교감), 정상빈(도교육청 초등 장학사), 홍대수(온평초등학교 교감), 홍창희(탐라교육원 연구사) 등이 있으며, 교사로는 강태하(서울, 중등), 김상집(중등), 김영배(중등), 김창만(중등), 김창희(중등), 김현철(중등), 송창윤(중등), 양남영(중등), 양진수(초등), 이성진(충남, 초등), 이용철(중등), 전방언(중등), 조성용(초등), 현창건(중등), 황철보(중등) 등이 활약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는 강동균(철학박사, 동아대학교 철학과 교수), 강영주(공학박사, 제주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공과대학장, 기획연구실장 역임), 김동성(정치학박사,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성일(교육심리학박사, 강릉대학교 교수), 김언식(문학박사,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서두옥(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어업학과 교수, 학생처장 역임), 윤창훈(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임상용(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진영일(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 마. 14회 출신 교육자

김승문(남주중학교 교장), 김용남(경남, 중등 교장), 좌승원(봉개초등학교 교장)과 고문봉(한림초등학교 교감), 김경옥(광령초등학교 교감), 김종천(제주상업고등학교 교감), 문종원(신제주초등학교 교감), 박두운(종달초등학교 교감), 서종필(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감), 신진영(동광초등학교 교감), 양석주(중문상업고등학교 교감), 오승용(보목초등학교 교감), 현대송(세화초등학교 교감) 등이 교장과 교감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강안수(초등), 강영진(중등), 강완호(중등), 강위원(초등), 고영훈(중등), 김덕범(초등), 김덕훈(중등), 김상우(중등), 김승문(경남, 초등), 김여택(경남, 중등), 김영국(인천, 중등), 김용규(중등), 김용범(남하, 초등), 김용호(중등), 김정민(중등), 김창성(중등), 김평수(중등), 김호구(중등), 문수병(중등), 문영호(중등), 서대웅(중등), 신동금(부산, 중등), 이근칠(중등), 이윤희(중등), 이인희(대구, 중등), 이창엽(중등), 장갑천(인천, 중등), 정 린(부산, 중등), 조철수(중등), 최원중(초등), 한용규(중등), 현수원(중등), 홍승운(서울, 중등), 홍인철(중등), 황행문(초등) 등이 초등과 중등 교사로 있다.

대학 교수로는 강경보(제주산업정보대학 전기과 교수), 고강옥(철학박사, 부경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정림(이학박사, 한양대학교 과학기술대학장), 김호진(한양대학교 이과대학장), 안영화(수산학박사,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학장), 양일우(이학박사, 육군사관학교 교수), 현진오(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등이 전문분야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

#### 바. 15회 출신 교육자

15회 출신으로 보통교육에 임하고 있는 동문으로 김창진(제주도교육청 장학관), 강철준(중등), 고남석(중등), 고병준(중등), 고익중(초등), 김경국(중등), 김동석(초등), 김두범(초등), 김윤하(초등), 김응표(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 교감), 김창진(중등), 김한진(중등), 박대영(서울 초등), 박영순(도외, 중등), 박홍일(중등), 변동옥(중등), 부남권(연평초등학교 교감), 서종수(중등), 신동환(중등), 신현범(연평초등학교 교감), 양영재(중등), 양태운(중등), 오두은(중등), 이길송(중등), 이태익(중등), 장철우(중등), 현길도(중등) 등이 후학 육성에 힘쓰고 있다.

대학 교수로는 강용식(제주산업정보대학 토목과 교수), 강종욱(농학박사,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고경표(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경상대학장 역임), 고경환(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장), 김광춘(제주관광대학 전임교수), 김병택(문학박사, 제주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김순협(공학박사, 광운대학교 전산사회교육원장), 김종수(상학박사, 명지대학교 경영무역학부 교수), 김창희(제주관광대학 학장), 김태균(제주산업정보대학 부교수), 송정실(문학박사, 신라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양경주(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인문대학장 역임), 양

병수(공학박사, 부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 사. 16회 출신 교육자

강상숙(도외, 초등), 강승현(초등), 강정홍(초등), 고근배(중등), 고원칠(중등), 김경식(남광초등학교 교감), 김영길(중등), 김영대(중등), 김영순(도외, 중등), 김현준(중등), 문무병(문학박사, 중등교육연구사), 문태경(중등), 박성철(중등), 박요찬(초등), 부상호(서귀포교육청 장학사), 양보현(초등), 양성중(중등), 양철호(중등), 오상봉(초등), 이방근(초등), 이영진(중등), 허 철(중문중학교 교감), 현성수(중등) 등이 보통교육 일선에서 후진 육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는 고성준(정치학박사,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고재진(공학박사, 울산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장), 김수홍(상명여자대학교 전산학과 교수), 김시남(부산여자대학 전산학과장), 김영철(중앙대학교 서양화학과 교수), 부봉현(충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양한섭(이학박사, 부경대학교 해양과학대학장), 임완순(경영학박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 홍재상(이학박사,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교수) 등이 있다.

#### 아. 17회 출신 교육자

17회의 교육자들로 강길수(중등), 고원배(초등), 고희석(중등), 김성량(중등), 김성찬(서울, 중등), 김영천(초등), 김용희(초등), 김종근(중등), 김치홍(신성여자고등학교 교감), 김태신(부산, 중등), 김태중(중문초등학교 교장), 문후영(서울, 중등), 박기범(도외, 중등), 부광훈(중등), 부권철(서울, 중등), 양상일(중등), 양영선(중등), 오영주(중등), 윤두호(남녕고등학교 교감), 이원희(중등), 한일섭(경기 성안교 교감), 한재업(대구, 중등), 현대훈(초등), 황용호(도외 중등) 등이 보통교육계에서 후진양성에 임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는 고성효(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경상대학장 역임), 고충석(행정학박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주발전연구원장), 김광삼(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교학3과장), 김두화(이학박사, 제주대학교 교수), 김창부(공학박사, 인하대학교 기계항공자동화공학부 교수), 문덕홍(공학박사, 부경대학교 교무처장), 문성숙(문학박사,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문정인(정치학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국제대학원장), 양정규(공학박사, 여수대학교 기관공학과 교수), 오문길(문학박사, 조선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임용순(교육학박사,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은실(교육학박사,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좌종철(제주산업정보대학 전기과 교수), 현창현(공학박사, 강원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등이 후학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 자. 18회 출신 교육자

보통교육계로 진출한 동문으로 강상무(중등 장학사), 강영식(중등), 강응천(초등), 고관일(서울, 초등), 고석문(초등), 고영석(중등), 고영호(중등), 고인지(중등), 김명철(서울, 중등), 김성만(중등), 김성익(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김완진(중등), 김용현(중등), 김익상(중등), 김창욱(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김춘식(토평초등학교 교감), 문영철(중등), 문용길(제주도교육청 장학사), 박성인(중등), 박용근(중등), 변종현(중등), 안근훈(도외, 중등), 양익철(안산초지고등학교 교장), 이용우(중등), 이창준(중등), 장군수(중등), 조석민(도외, 중등), 홍성규(중등) 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강길범(공학박사, 동명대학교 교수), 강문철(음악평론가, 제주관광대학 교수), 강창일(문학박사, 배제대학교 교수), 고대진(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부교수), 김두경(공학박사,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양방주(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허귀진(경영학박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관리부장), 홍성방(법학박사,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전문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 차. 19회 출신 교육자

보통교육에 종사하는 동문으로 강용준(중등), 강위인(중등), 고승무(중등), 고영만(초등), 고영희(중등), 김규원(서울, 초등), 김대선(도외, 중등), 김수관(중등), 김영진(중등), 김용훈(도외, 중등), 김종욱(중등), 김종생(초등), 김형식(중등), 나기철(중등), 문영기(경남, 중등), 문우철(중등), 박형진(중등), 백광익(중등), 부대성(중등), 신영택(중등), 안상욱(중등), 이경용(도외, 중등), 이병철(중등), 이수남(중등), 이평식(경기, 중등), 장창용(충남, 중등), 하인기(전남, 중등) 등이 후세 교육에 정진하고 있다.

대학에는 강지용(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영주(공학박사, 한양여자대학교 컴퓨터리트학과 교수), 류태길(회계학박사,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 백승주(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송창길(식물자원학박사, 제주대학교 농학과 교수), 양병훈(숭의여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오성보(공학박사, 제주대학교 기획처장), 이기암(이학박사, 단국대학교 기초대학장겸 산업정보대학원장), 이왕주(철학박사, 부산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홍창희(임상심리학박사,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등이 후진 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이상 10회부터 19회까지 교육계로 진출한 동문은 초·중등 211명, 대학교수가 95명에 이른다. 초·중등 교원 가운데 교장급이 19명, 교감 직급이 46명이다. 교장으로 승진할 대상인 교감이 현재 46명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상당수의 인원이 보통교육계를 이끌어갈 직위에 부상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다.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사도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

한다 할 것이다.

대학 교수도 95명에 달해 이 고장뿐만 아니라, 전국 나아가 구미에서까지 오현인의 기상을 떨치고 있으니 오현사에 그 빛을 더해주고 있다.

## 제4절 1970년대의 회기별 교육자

### 1. 1970년대 교육 환경

1970년대는 유신헌법의 공포와 국가안보를 우선한 정부 시책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상당히 통제를 당하는 시기였다. 대학생들의 데모는 계속되었고, 반공사상(反共思想)이 위력을 떨치는 시기이기도 했다.

1971년 10월 15일 학원 질서 확립을 위한 위수령(衛戍令)을 발동, 대학에 무장 병력을 투입했다가 하면, 1972년 10월 17일 전국비상계엄령이 선포되게 이르렀다. 1971년 6월 26일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이 공포되기도 했다. 한편 증가되는 교육적 요구와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1972)과 방송통신고등학교(1974)가 설립되었다.

대학입시제도가 1960년대 후반까지는 대학별로 자체 출제하여 선발했었는데 <예비고사>라는 국가고시를 실시(1968. 11)하여 계열별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이 때는 어떻게 하면 많은 재학생들이 대학입학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비고사 성적을 올려주느냐에 학교교육이 집중된 시기이기도 했다.

학교 내부적인 변화로는 3학급이 증설인가(1972. 7)되었고, 오현단 교정에서 현재의 화북동 위치로 학교가 이전(1972. 9. 1)되었다. 8대 교장으로 황병선(黃秉善) 선생이 취임(1973. 2)했으며, 다시 3학급이 증설인가(1975. 11)되었고, 관광과 3학급이 보통과 3학급으로 개편(1978. 9)되어 한 학년이 9학급으로 편성돼 오늘에 이르고있다.

학교 분류의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이 때를 전후해 학교를 떠났고, 학부모들이 공립학교 선호 경향은 더해져 가는 데다 학교 이전으로 통학상의 문제마저 걸림돌이 되어 우수 학생 영입에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현재와 같이 추첨에 의한 학교 배정이 아니라 각자 지망에 의해 입학한 마지막 회기가 29회라는 점에 20대 회기의 단결과 애교심이 더 돋보이는 연유가 아닌가 한다.

이시기의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1973-1982)기였다.

## 2. 1970년대 회기별 출신 교육자

### 가. 20회 출신 교육자

20회 동문은 강만순(경영학박사, 중등), 강영구(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고문수(서울, 중등), 고영희(제주도교육청 장학사), 고재욱(중등), 김동주(경남, 중등), 김석관(중등), 김석범(중등), 김재필(초등), 김종덕(중등), 김종철(중등), 김춘호(서울, 중등), 문대훈(중등), 박성철(중등), 박종삼(도외 중등), 변동엽(중등), 신광재(중등), 안영익(중등), 양영길(문학박사, 중등), 이백형(중등), 이상철(중등), 이수근(경남, 중등), 장성환(중등), 장정진(초등), 장호언(부산, 초등), 정희만(초등), 현익부(초등), 현학봉(중등), 홍기(중등), 홍영준(중등), 홍태순(중등) 등이 보통 교육 현장에 있다.

대학에는 고봉수(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고승익(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고영철(정치학박사,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김봉주(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강사), 김석봉(광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박대철(공학박사, 한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양양한(농학박사,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종우(이학박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진철훈(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홍진표(공학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공과대학장), 홍창국(제주산업정보대학 학보·방송·교지 주간교수) 등이 후학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 나. 21회 출신 교육자

21회 출신으로 보통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은 강승보(초등), 고석희(중등), 고완진(중등), 김경종(초등), 김명국(초등), 김성태(중등), 김윤수(경기, 중등), 김장영(중등), 김종석(중등), 김한중(대기고등학교 교감), 나승호(중등), 박홍진(도외, 중등), 부경민(도외, 초등), 손창환(중등), 안영석(중등), 양계수(초등), 양상철(서울, 초등), 양승호(중등), 양희준(중등), 오두준(초등), 오영호(경기, 초등), 오평봉(중등), 이수배(중문초등학교 교감), 이종실(중등), 이행운(초등), 장원택(중등), 정성준(중등), 정창현(경기, 중등), 최학규(중등), 홍권표(중등), 홍영표(도외, 중등) 등이 있다.

대학교수로는 고행준(이학박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경택(경제학박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석준(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성원(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강사), 김영진(경영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호텔경영과 교수), 신동범(공학박사,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경주(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진성일(이학박사,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허정훈(철학박사,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교수 등이 후진을 육성하고 있다.

### 다. 22회 출신 교육자

22회 출신으로는 강경우(중등), 강기남(중등), 강준배(중등), 김명진(중등), 김세홍(중등), 김원태(경북, 중등), 김인택(중등), 김창립(중등), 김창식(초등), 박순형(중등), 안상근(중등), 안재근(초등), 양관수(초등), 양남현(중등), 양대송(중등), 양완규(중등), 이석범(중등), 이창표(도외, 중등), 탁영범(중등), 현익희(경남, 중등) 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강경수(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 교수), 강동일(농학박사,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김영국(경영학박사, 동국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우신(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 강사), 김진영(문학박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문대철(공학박사, 호서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교수), 문창옥(광운대학교 겸임 교수), 부덕훈(이학박사, 충남대학교 수학과 교수), 윤치영(이학박사, 대전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현해남(농학박사,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등이 있다.

#### 라. 23회 출신 교육자

23회는 강인태(중등), 고경천(도외, 중등), 고경훈(서울, 중등), 고기호(도외, 중등), 고순국(중등), 고승훈(강원, 중등), 김기만(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동규(도외, 중등), 김백철(중등), 김병효(중등), 김상택(도외 중등), 김영준(초등), 김재봉(중등), 김태행(중등), 김홍철(중등), 문경옥(경남, 중등), 박만실(도외, 중등), 안성복(중등), 양호형(장학사, 경기도 동두천교육청), 오선홍(중등), 이용중(초등), 임성문(중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 강민섭(공학박사,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고석찬(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고윤희(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고재문(공학박사, 울산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김동주(공학박사, 제주대학교 해양학과 강사), 김동현(약학박사, 경희대학교 약학과 교수), 김만호(공군사관학교 법학 교수), 김효식(제주한라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김희철(경영학박사, 청운대학교 국제무역정보학과 교수), 양동현(경영학박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양윤모(영화평론가, 서울예술대학 강사), 전용범(제주산업정보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현창택(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등이 재직하고 있다.

#### 마. 24회 출신 교육자

24회 동문중에는 강남일(고산상업고등학교 교감), 강창용(부산, 특수학교), 강학운(초등), 고문섭(초등), 고방문(도외, 중등), 고승호(중등), 고희구(중등), 김동석(중등), 김병찬(중등), 김상용(경기, 중등), 김성주(광주, 중등), 김정택(중등), 김지용(중등), 김태균(충북, 중등), 문상필(경남, 중등), 박경민(중등), 박명균(중등), 송경욱(초등), 오승식(장학사, 서귀포교육청), 유봉수(도외, 중등), 윤평수(중등), 이계형(중등), 이상윤(경북, 중등), 장영배(도외, 중등), 한강범(경남, 중등), 한성섭(이학박사, 중등), 한중훈(도외, 중등), 허종순(중등), 현석곤(경남, 중등), 현창국(전남, 중등),

홍승식(중등) 등이 있다.

대학에는 강문봉(교육학박사, 인천대학교 사범대 교수), 김영호(미술사학박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학과 교수), 김용찬(강릉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은석(문학박사,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찬식(농학박사, 제주대학교 농화학과 교수), 박석봉(공학박사,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신왕우(제주산업정보대학 관광경영과 교수), 양영근(경영학박사, 탐라대학교 관광학부장), 윤양호(이학박사, 여수대학교 교수), 이동수(서울신학대학 교수), 이우상(경영학박사, 진주전문대학 관광과 교수), 임춘배(제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조춘봉(충남산업대 호텔조리식당경영과 교수), 한중선(문학박사, 영동대학 일본어과 교수), 홍성관(이학박사,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등, 20회기 중 비교적 많은 동문이 재직중이다.

#### 바. 25회 출신 교육자

25회 출신 교육자들로 강덕진(도외, 중등), 강재철(장학사, 북제주교육청), 고병희(초등), 고석종(중등), 고영탁(탐라교육원 연구사), 고완선(중등), 고용범(장학사, 서귀포교육청), 고이수(중등), 고창영(중등), 김경환(중등), 김근봉(초등), 김동훈(중등), 김영은(중등), 김진식(초등), 김충우(중등), 문봉준(중등), 문성률(중등), 문중식(중등), 변성구(교육연구사, 중등), 부귀현(중등), 서봉해(중등), 양경식(중등), 양두은(중등), 양운택(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청), 양한진(중등), 오기만(중등), 오성준(초등), 오인찬(초등), 윤상훈(도외, 중등), 이석문(중등), 이종철(도외, 중등), 정선희(경기, 중등), 진창호(중등), 최원식(중등), 현상훈(경남, 중등), 홍원삼(중등), 홍의기(초등), 홍창훈(부산, 중등) 등이 있다.

대학 교수로 고동환(문학박사,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고승익(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강사), 고창균(제주관광대학 관광사진영상과 교수), 고희중(공학박사,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김창균(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형철(문학박사, 제주한라대학 관광일어통역과 강사), 양명환(교육학박사,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오창호(이학박사, 한양대학교 화학과 교수), 오평석(금융학박사, 제주한라대학 경영과 교수), 윤상택(제주산업정보대학 스포츠산업계열 교수), 이흥기(공학박사, 중앙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등이 후학을 육성하고 있다.

#### 사. 26회 출신 교육자

26회는 고대승(서울, 중등), 고승호(강원, 중등), 고익부(서울, 중등), 고인배(중등), 고희곤(도외, 중등), 곽상윤(중등), 김두후(중등), 김승호(도외, 중등), 김용정(중등), 김윤석(도외, 중등), 김재돈(중등), 박윤중(중등), 부영찬(서울, 중등), 송만선(초등), 신동하(중등), 안진성(도외, 중등), 양병우(부산, 중등), 양봉관(중등), 오상우(중등), 오선철(중등), 오천현(도외, 초등), 이방형(인천,

중등), 이종보(초등), 임병진(중등), 현대영(중등), 홍상국(초등), 홍성운(중등), 홍성호(중등) 등이 보통교육계에 있다.

대학 교수로 고통호(문학박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고완기(제주한라대학 정보통신계열학과 교수), 김수영(영동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김인택(이학박사, 공군사관학교 교수), 오창경(제주정보산업대학 관광호텔조리과 교수), 이광용(문학박사, 수원여자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이승호(이학박사,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정광중(이학박사,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홍성범(철학박사, 미국 북텍사스대 객원교수)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아. 27회 출신 교육자

보통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27회 동문은 강경완(중등), 강문유(중등), 강영철(초등), 강호준(중등), 고관(중등), 고명부(도외, 중등), 고법석(초등), 고성원(중등), 고영종(중등), 고우현(중등), 김경범(중등), 김광철(초등), 김기준(중등), 김대민(초등), 김선희(초등), 김정용(도외, 중등), 김종길(도외, 중등), 김태한(대전, 중등), 김한국(중등), 박영태(초등), 박재현(도외, 중등), 박정용(전남, 중등), 백경운(초등), 소희진(도외, 중등), 안용태(전남, 중등), 양석중(중등), 양재익(중등), 양종훈(중등), 오범철(중등), 이기관(중등), 이수완(중등), 장상섭(서울, 중등), 홍문철(중등) 등이다.

대학 교수로는 강승희(서울추계예술대학 판화과 교수), 강주찬(이학박사,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교수), 고봉현(제주한라대학 관광경영과 강사), 김상현(수산학박사, 제주대학교 해양연구소 특별연구원), 김장현(제주관광대학 관광사진영상과 교수), 김창현(문학박사, 고려대학교 사학과 강사), 변재현(공학박사, 경상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부진효(이학박사,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교수), 최옥훈(공학박사, 안동정보대학 건축과 교수), 한종길(제주관광대학 귀금속공예과 교수) 등이 후진 양성에 진력하고 있다.

#### 자. 28회 출신 교육자

28회 출신으로 보통교육계에서 활동중인 동문으로는 고경수(중등), 고영완(중등), 고요섭(중등), 고현수(중등), 김광찬(중등), 김근대(중등), 김대원(중등), 김방수(중등), 김상기(중등), 김성용(중등), 김순찬(서귀, 중등), 김순찬(제주, 중등), 김오진(중등), 김정현(중등), 김창희(경기, 중등), 김천희(중등), 김혁신(도외, 중등), 류경호(중등), 문기훈(중등), 문행섭(중등), 송시대(이학박사, 중등), 양두찬(중등), 양호근(경북, 중등), 오창은(중등), 이대식(중등), 이성훈(경기, 중등), 이원호(경기, 중등), 이인구(중등), 이정일(중등), 이정호(서울, 중등), 이창옥(중등), 조영민(도외, 중등), 진상필(중등), 한기홍(중등), 현대근(중등), 홍기표(중등), 홍도성(서울, 중등), 황대삼(도외, 중등) 등이 있다.

대학에는 강주섭(의학박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교수), 강창남(공학박사,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교수), 고관영(공학박사, 울산전문대학 금형설계과 교수), 김성필(법학박사, 호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희철(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문성집(제주대학교 음악과 교수), 박용군(공학박사, 명지전문대학 기계설계과 교수), 신동용(공학박사, 제주한라대학 방사선과 겸임교수), 양만기(문학박사, 제주한라대학 관광중국어통역과 교수), 최철영(제주한라대학 교수), 한승현(공학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환경건축공학부 교수) 등이 활약하고 있다.

#### 차. 29회 출신 교육자

29회는 강상호(중등), 강성립(도외, 중등), 강영수(중등), 강학철(중등), 고상범(중등), 고영준(중등), 고희전(도외, 중등), 김기범(서울, 중등), 김기환(중등), 김동휘(중등), 김석운(중등), 김원중(경기, 중등), 김일방(중등), 김재용(중등), 김형진(도외, 중등), 마상학(도외, 중등), 문대원(도외, 중등), 문영호(초등), 문정배(중등), 문한중(서울, 중등), 박규남(중등), 박순기(도외, 중등), 백경찬(경기, 중등), 송희권(중등), 안영수(중등), 양공원(중등), 양재영(강원, 중등), 양정웅(서울, 중등), 양철훈(경기, 중등), 양태진(중등), 오경규(중등), 오남철(중등), 이경철(도외, 중등), 이상학(경남, 중등), 이상훈(중등), 이완중(중등), 장재병(서울, 중등), 진인찬(서울, 중등) 교사 등이 있다.

대학에서 후학들을 육성하고 있는 동문은 강관수(공학박사, 초당대교수 재임 중 작고), 강동식(제주관광대학 국제정보통신과 교수), 강승필(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사범대 수학교육과 강사), 김원보(문학박사,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교수), 진관훈(경제학박사,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등이 있다.

20대 회기에서 보통교육계로 진출한 동문은 10대 회기에 비해 100여명이 많은 308명에 이르고 있다. 대학 교수도 102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보통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도 학위 소지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동 무대가 전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5절 1980년대 회기별 출신 교육자

### 1. 교육적 환경

한국 교육의 발전과정을 보면, 1950년대는 국민기초교육의 확대, 1960년대는 교육의 양적성장, 1970년대는 교육개혁의 추진, 1980년대는 교육의 내실화로 구분할 수 있다. 1980년대의 교육은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지향하는 전인교육과 국민의 이데올로

기 비판능력과 국가적인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국민정신 교육을 강조하는 시기였다. 대학입시 제도에 있어서도 예비고사에서 학력고사로 그 명칭을 바꾸어 대학별 선발고사를 폐지시키고 학교 내신등급에 따른 점수와 학력고사 점수로써 선발하였다. 이는 과열과외 해소 방안(흔히 7·30조치라 한다)으로 실시됐으나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의 저해, 인성교육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제 교실수업은 교사 중심의 완전학습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후 첫 회기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신입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 오현 중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이 때 서울대학교 진학 상황을 보면, 30회 41명, 31회 50명, 32회 50명으로 전국적인 명문고등학교로 그 위상을 과시할 수 있었다.

## 2. 1980년대 회기별 교육자

### 가. 30회 출신 교육자

30회 출신은 강대옥(도외, 중등), 강병욱(중등), 강성택(중등), 강태근(도외, 중등), 강학주(도외, 중등), 고경수(중등), 고영수(경기, 중등), 고정현(경기, 중등), 김석중(중등), 김수범(강원, 중등), 김수훈(중등), 김창우(도외, 중등), 김철수(도외, 중등), 김희철(중등), 류상언(중등), 박희중(중등), 변종태(중등), 부양식(부산, 중등), 송문석(중등), 송승호(중등), 송태원(중등), 신성범(중등), 양성운(중등), 양용호(도외, 중등), 오학수(중등), 이광호(도외, 중등), 이성조(도외, 중등), 장용석(중등), 정창규(경기, 중등), 한경태(서울, 중등), 한봉철(강원, 중등), 황정훈(도외, 중등) 등이 경향 각지에서 2세 교육에 정진하고 있다.

대학 교수로는 강봉수(철학박사,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강사), 강태삼(공학박사, 건국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고대만(교육학박사,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고동완(공학박사,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고주홍(제주한라대학 컴퓨터정보계열 겸임교수), 고창섭(공학박사, 충북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대경(제주관광대학 호텔경영과 교수), 김재훈(법학박사, 한림대학교 교수), 김종하(공학박사, 동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양경철(공학박사, 포항공과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이무성(공학박사, 전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전임강사), 송관정(농학박사,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등이 있다.

### 나. 31회 출신 교육자

31회 출신은 강재길(중등), 고광인(중등), 고영기(서울, 중등), 김맹중(중등), 김상규(도외, 중등), 김창진(중등), 김철준(중등), 신상후(중등), 양용준(중등), 오승룡(중등), 오철한(중등), 윤정택

(중등), 이상진(중등), 임영중(경기, 중등), 임용진(중등), 장봉근(강원, 중등), 장희병(도외, 중등), 정영익(도외, 중등), 정 훈(중등), 진규섭(중등), 한승호(중등), 한왕진(도외, 중등), 현구(도외, 중등), 현순호(중등), 현승돈(서울, 중등), 홍선옥(서울, 중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는 고원용(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도시·교통과학연구소 연구원), 김대희(교육학박사,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환경교육과 교수), 김병만(공학박사, 금오공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호찬(공학박사,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송윤석(공군사관학교 강사), 송창수(공학박사, 호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오종철(이학박사, Iowa State Univ.에 교환교수), 윤대일(동명대학 강사), 이법이(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해부학 조교수), 전영준(동국대학교 교수), 조윤석(공학박사, 한동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현동근(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경훈(한국방송통신대학본부 농학과) 등이 있다.

#### 다. 32회 출신 교육자

32회 출신 교육자로는 강건철(중등), 강경구(서울, 중등), 강석주(중등), 강춘수(중등), 강혁준(중등), 고명신(도외, 중등), 김민호(중등), 송승섭(중등), 송창섭(중등), 오만익(중등), 이승재(경기, 중등), 주성문(서울, 중등), 한동기(도외, 중등), 강남철(초등), 홍성호(중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 재직동문은 강부식(제주관광대학 국제정보통신과 전임강사), 고동우(문학박사, 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승철(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 전임강사), 송병철(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오승훈(한국방송통신대학 제주지역학습관), 임유종(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허용호(문학박사, 제주한라대학 교양학부 교수) 등이다.

#### 라. 33회 출신 교육자

33회 출신으로 보통교육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육자는 강남철(초등), 고성범(중등), 김재현(경기, 중등), 김정훈(중등), 문경보(초등), 문성철(초등), 박장익(도외, 중등), 양익전(중등), 오정훈(중등), 이원용(초등) 교사 등이다.

대학 교수는 강승호(이학박사, 텍사스주립대학교 조교수), 강대준(공학박사,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 고영상(이학박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김병수(이학박사, 인제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조교수), 김성근(연세대학교 강사), 김중철(문학박사,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문성환(공학박사, 서울대 우주공학연구소), 문순환(공학박사, 주성대학 공업경영과 교수), 장성음(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조교), 한정석(경영학박사,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등이 활약하고 있다.

#### 마. 34회 출신 교육자

34회는 교육자로 강창현(중등), 고정상(중등), 고창균(도외, 초등), 김영관(중등), 박경환(초등), 송창용(중등), 양성표(도외, 초등), 우광훈(초등), 윤성호(도외, 중등), 이문갑(초등), 이석(도외, 중등), 조문준(중등), 한용식(중등) 등이 보통교육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학에는 강경우(공학박사, 천안대학교 정보통신학부 교수), 강지훈(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영남(교육학박사,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강민수(제주관광대학 관광정보처리과 교수), 김근형(공학박사,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덕주(제주관광대학 교수), 김동청(순천제일대학 식생활과 교수), 김동훈(경제학박사, 미국 코네티컷주립대학 교수), 김무영(제주대학교 정보공학과 강사), 박수환(제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서정건(관광학박사,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오종환(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태완(제주한라대학 강사) 등이 있다.

#### 바. 35회 출신 교육자

35회 출신 교사들로 김경호(도외, 중등), 김민섭(초등), 박성연(중등), 박수남(초등), 배운석(중등), 서영준(서울, 중등), 송성환(초등), 양봉진(서울, 중등), 오상훈(도외, 중등), 이귀철(중등), 정훈도(도외, 중등) 등이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 후진을 육성하고 있는 교육자로 고석룡(제주한라대학 정보통신계열 교수), 고충환(제주한라대학 생활체육과 교수), 김정은(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휴찬(제주한라대학 정보통신계열 교수), 이병문(제주대학교 해양생물학부) 등이 있다.

#### 사. 36~39회 출신교육자

36회부터 39회까지 보통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로 강형중(서울, 중등), 김도훈(중등), 김민수(도외, 중등), 김보성(중등), 김태형(중등), 이철우(초등), 한정훈(도외, 중등) 등이 36회 출신이고, 강동현(초등), 고흥현(도외, 초등), 김남규(초등), 김석갑(초등), 양순규(인천, 중등), 원경환(도외, 중등) 등이 37회이며, 김재현(초등), 김훈철(중등), 서영준(초등), 정진봉(초등) 38회, 김양천(중등), 김재효(초등), 이철우(중등) 교사가 39회 이다.

대학에는 36회 출신으로 고재우(제주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 장순웅(환경공학박사, 경기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이가 있고, 고명철(광운대학교 겸임교수), 홍기돈(중앙대학교 강사)은 37회이다. 39회기 출신 김태관, 이동원 동문이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조교로 교육자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40회 장유진(공학박사)은 포항공과대학교 철강제어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있다.

1980년대 회기에 와서 교육자의 수가 1970년대 회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로 급락하

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1980년대 중반(32회기 졸업 시기)부터 산업사회로 급부상하는 시기여서 교육자로서 사회적 인기도가 하위로 떨어져 사범계로 진학을 기피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는 30-39회 출신 가운데 각종 고시(사법, 행정, 기술고시 등)에 합격자 수가 56명(동창회 자료)에 이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32회 이후부터 본도 중등교육계에서는 특수 학과 전공자 소수를 제외하고는 교사 임용이 거의 실시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회기별 동창회 운영이 정착되지 못한 연유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도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대학인 경우도 학위 소지자가 61여명에 달하고 현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인원은 57명이다.

## 제6절 교육 일반직

교육일반직으로는 제주도교육청에 시설과장 고영진(9),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고남식(13), 학교 운영지원과장 양학송(15), 총무과장 장일홍(16) 등의 서기관급 4명을 비롯하여 부문회(11), 김운수(16), 김성수(18), 현봉추(25) 등의 사무관급 4명, 행정주사 및 그 이하 직급에 46명 등 총 54명의 동문들이 봉직하고 있다.

행정주사 및 그 이하 직급에 한석주(14), 강성호(14), 신태균(19), 고병률(20), 김용목(20), 강영훈(21), 고용일(21), 문성운(21), 김병호(22), 강용하(23), 고재홍(24), 한일용(24), 부창완(24), 김치수(24), 백흥기(24), 고동환(24), 한재영(24), 현창선(24), 이종식(26), 강영훈(27), 고용민(27), 임찬식(27), 한관수(27), 박영태(27), 김희운(28), 고경훈(29), 이정운(29), 홍태유(29), 강상환(30), 박현철(30), 강민관(31), 고성혁(31), 김성부(31), 김형조(32), 김방수(32), 강정환(33), 박정환(34), 조인석(35), 강병균(35), 김병근(36), 정재훈(36), 김현수(37), 양진규(38), 강기환(39), 홍훈기(39), 고창성(40) 등 46명의 동문들이 봉직하고 있다.

그리고 도내 사립학교에서 봉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있는데, 오현고에 강병식(9), 김동하(28), 남주중에 최민철(16), 고산상고에 강승호(23) 동문 등 5명이다.

또 대학에는 제주대학에 32명, 제주교육대학에 4명, 탐라대학에 2명, 연세대, 단국대, 세종대에 각 1명과 도내 2년제 대학에 모두 16명의 동문들이 봉직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대학교의 김성환(12), 이행봉(12), 고충삼(13), 유춘기(14), 박경섭(14), 고기택(15), 김익수(16), 김태일(18), 좌종석(20), 고경생(21), 서윤진(21), 윤성보(21), 김석건(22), 강상현(23), 송성준(23), 진창경(23), 진우석(24), 강권익(25), 고상선(25), 김수진(26), 강병근(28), 고봉권(28), 김태완(28), 김태완(28), 허영철(28), 강승완(30), 변수철(31), 이채일(31), 조두환(32), 김희찬(38), 이수환(39), 김정훈

(39) 등 총 32명의 동문들이, 제주교육대학의 강두옥(20), 송정호(23), 진창남(24), 강신삼(24) 등 4명의 동문들이, 탐라대학의 한중태(9), 김생수(15) 등 2명의 동문들이, 한승일(18, 교육부 총무과 서기관), 연세대의 고정식(20), 단국대의 장철호(20), 세종대의 정용택(20) 동문들이다.

도내 2년제 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동문으로 제주한라대학의 홍인표(30), 송민관(30), 이준호(32), 고성삼(38), 오종학(38), 강문호(41), 방진호(42), 부성진(42) 등 8명의 동문들이, 제주산업정보대학의 이희봉(16), 강원일(18), 김재성(37), 부영진(38) 등 4명 동문들이, 제주관광대학의 강유상(35), 김은삼(43) 등 2명의 동문들이 있다.

## 제7절 결어

1회에서 39회까지 공 교육계로 진출한 동문들의 총수는 보통교육계가 818명이고, 대학 교수로 진출한 동문은 319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소개한 교육자의 총수는 1,139명이다. 이는 39회까지 졸업자 총수 14,000여명의 8%에 달하는 인원이 교육자의 길을 택했음을 말해준다. 교육행정직, 사설 교육기관, 기타 연구기관 등에서 직·간접으로 교육에 종사하는 동문들까지 포함한다면 졸업자 대비 10%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대도시 소재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모든 조건과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이처럼 많은 교육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오현의 열의가 빚어낸 결과로 자부할 일이다.

1950년대 각 회기별 출신 교육자들은 근대 교육의 불모지였던 이 고장에서 현대 교육을 향한 초석을 쌓는 데 기수역할을 했다면, 1960년대 출신 교육자들은 선배 교육자들의 뒤를 이어 제주 교육 발전에 도약의 기틀을 다졌다 할 것이다. 1960년대 회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외 진출을 시작하여 1970년대 회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이 고장뿐 아니라 경향 각지 어디를 가도 오현고 출신 교육자들의 뛰어난 교육자로서의 명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 교수로 진출한 경우는 일찍부터 도외 대학으로 길을 넓히더니 현재는 전국 어느 대학에 가도 오현고 동문 교수가 없는 대학이 없다할 정도가 되었으며, 나아가 전 세계 유명 대학에서까지 오현인의 교육적 기상을 펼치고 있어, 이제 오현 교육은 세계인을 교육하는 중책까지도 떠맡는 영예와 긍지를 갖기에 이르렀다.

김윤창(6회, 전 제주대학교부설중학교 교장)